

무엇을 심든 심은 대로 거둔다

As you sow, so you reap

황정복 | 대한건축사협회 이사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땀 흘린 대가만을 기대하고 결과에 아쉬워하기 보다는 시작에 더 많은 노력을 투자하라는 것이다.

2013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나 자신에게도 필요한 말이지만, 대한건축사협회를 위해 새롭게 일할 각오를 다짐하는 모든 임직원들에게도 필요한 말이라고 생각한다. 50년 가까운 역사를 지닌 우리협회는 더 이상의 시행착오는 필요하지 않다. 사실 협회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모르는 회장이 어디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와 함께 우리협회와 건축계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즈음에, 거창한 기대에 부풀어 떠들썩한 공약보다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이끌 것인지 차분하게 짚어보는 것이 지나치지 않을 것 같다.

우리협회는 그동안의 많은 노력의 결과, 먼저 심어놓은 씨앗으로 건축사공제조합, 건축사등록원, 건축사교육원, 친환경연구원, 한옥설계전문인력양성사업, 2017UIA서울총회 유치 등 숙원을 이뤄 좋은 싹을 틔웠다. 이제까지의 수고와 노력을 헛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 특단의 각오로 발전시켜 다양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또한 해결되지 못한 정책과 법안들에 대해서는, 완벽한 보고서를 냈다고 뒷짐 지고 만족하여 처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회원을 위한 일이라면 죽기 살기로 발로 뛰어 관철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다. 수고한 이상의 것을 기대하거나, 더 많은 것을 심은 사람들의 대가를 시기하거나, 아무것도 심지 않고 얻는 게 없다고 불평하며 어리석게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은 결국 패가망신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대한건축사협회에만 노력하지 않고 얻어지는 공짜가 있을 리 없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속한집단을 비난하고 확대재생산하여 문제를 키우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우리협회에는 더 이상 필요치 않다. 어느 부분이나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다하고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해결자로서의 의식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새로운 정부는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민생정부로 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40대를 전후하여 직장에서 나와야 하는 시대, 평생직장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직장의 수명이 짧아진 시대에서 삶의 기간은 늘어나고 그로 인해 삶의 모습과 구조 자체가 바뀌었는데, 길어진 인생의 후반도 건축사로 살아갈 수 있는 존경받는 전문가로서의 자존감이 필요하다.

우리협회 새 집행부는 제 살 깎기의 악순환을 모두가 힘을 합쳐 막아내고 건축사의 대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건축사로서 새로운 시대의 틀에 맞추어 평생 직업을 기대할 수 있도록 많은 씨앗을 심기를 바란다. ㄷ

필자는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했다. 경기도 건축위원회 위원, 경기도건축사회 수원지역건축사회 회장, 수원시 건축위원회 위원, 수원과학대 건축과 겸임교수로 활동한 바 있으며, 현재 예문 건축사사무소 대표로 재직 중이다.